



광남일보



주간 제 8044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음력 1월 28일)

막오른 특별시장 경선, 통합·결단의 리더십이 판가름

전례없는 광역행정 통합에 해결 과제 산적 초대 시장, 현안조정·과감한 판단력 등 절실 합동연설·토론회 등서 지역민 설득인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어느 후보자가 '통합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광역행정통합이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가 통합특별시장이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난제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를 통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경선 일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에 참여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을 접수했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예비경선(권리당원 100%)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광주 광산구)·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준호(광주 북구갑)·주철현(여수시) 국회의원 등 7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제

안한 시민배심원제 채택을 요구했으나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11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중앙당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5명을 압축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다득점 후보 2인이 참여하는 결선이 다음 달 1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들여다보면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예비후보자는 아직 없고 예비후보들 간의 지지를 격차도 크지 않다. 각 후보자 선거 캠프와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예비경선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본경선을 치러도 20여일 사이에 과반의 득표를 얻는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이 낮아 결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 간 연대나 지지표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다.

탈락하는 예비후보들이 본경선 진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거나, 본경선 진출자들 사이에 후보 간 단일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실제로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경선일이 촉박한 만큼 경선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선이 워낙 단기간에 치러지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넓은 광역행정구역 두

개를 합친 선거구여서 합동연설이 발생하고 해도 특정 후보가 단기간에 과반의 표를 결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합동연설이나 합동토론회는 물론 예비후보자들 간의 연대와 지지선언 등에서 '어느 후보자가 지역민의 기대하는 통합과 결단의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

이 높다.

한 후보 출신 중앙당 당직자는 "통합시장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통합과 연대의 리더십"이라며 "예비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는 합동연설회와 상호 정책을 다루는 조별 토론회는 물론 후보자 간 연대나 지지 선언, 단일화 등에서 당원과 지역민은 경쟁자인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그

릇을 가진 후보가 누구인가를 눈여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결단력도 요구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과의 합동연설을 시도하고 있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김영록(왼쪽부터)·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내년 의대 증원... 전남대·조선대 50명

각각 31명·19명...2031학년도까지 총 312명 배정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광주 지역 의대 정원도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7~2031학년도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배정안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의대 2곳의 학생 정원은 2024학년도 250명에서 2027학년도 300명으로 늘어난다. 전남대 의대는 기존 125명에서 156명으로 31명, 조선대 의대는 125명에서 144명으로 19명 각각 증가한다.

정원 확대는 이후에도 이어진다. 2028~2031학년도에는 전남대 의대가 163명으로 늘어 기존보다 38명 증가하고, 조선대 의대는 149명으로 확

대돼 24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의대 총 정원은 312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증원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어난 정원으로 선발되는 학생들에게는 '지역의사제'가 적용된다. 지역 의사제로 뽑히는 학생들은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대신 재학 기간 등록금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대학들은 오는 24일까지 이번 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통합시장 예선전 '7인7색'... '명심잡기' 경쟁 후끈

7분씩 정견발표... 비전·정책·권역별 구상 등 소개 내일부터 이틀간 조별토론회... 19~20일 예비경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첫 번째 격돌의 장이 된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연과 정치적 접점을 강조하며 초대 특별시장 적임자 경쟁을 펼쳤다.

후보들은 또한 산업·경제 비전과 권역별 발전 구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표심을 자극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 검증을 위한 온라인 합동연설회를 열고 후보별 홍보영상과 7분씩의 정견발표를 통해 국내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7인의 비전과 정책을 소개했다.

연설회 순서는 △기호 3번 정준호 △기

호 6번 민형배 △기호 4번 주철현 △기호 7번 이병훈 △기호 2번 강기정 △기호 1번 김영록 △기호 5번 신정훈의 순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의 상황을 전제로 자신이 대통령과 가장 잘 호흡할 수 있거나 인연이 있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정준호 후보는 자신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최초 발의자이자 통합의 설계자"라고 소개하며 호남 재통합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과 광산구청장으로 만나 16년간 정치와 정책의 역사를 만들며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 대

통령과의 오랜 정치적 동행을 강조했다.

주철현 후보는 "지난 대선 경선부터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며 대통령과의 정치적 호흡을 강조했다.

이병훈 후보는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경력 등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대통령 인연 강조를 겨냥해 "모두가 대통령의 후광을 쫓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을 빛낼 사람"이라고 자신을 부각했다.

김영록 후보는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 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앞세우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2면으로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 광주비엔날레 9월 5일 개막

오는 9월 5일 개막하는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주제가 발표됐다.

(재)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2일 간담회를 열고 '2026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호추니엔 Ho Tzu Nyen) 주제가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6면

이번 전시 주제인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는 체코 출생 독일문학의 대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가 1908년 발표한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차용된 것으로, 상상 속의 파편화된 고대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이어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23개국 45명 인원의 작가 230여점 등 참여작가 규모가 드러났으며, 광주·전남출신 작가는 5명 안팎이 참여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제10회 나주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제22회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기념 시·도민 영산강 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방문장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연국 T. 062)370-7090

※ 후원 시에도 진행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건라도, 후원(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유계지역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